



금리인상기의 해외기관투자자의 대응법

1. 미국 생명보험사 Metlife의 금리인상 대응법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을 늘려나가는 전략 구사
- 2021년 Metlife는 해외국채와 회사채, 모기지의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과 주식, 미국채권을 확대

2. 네덜란드 ABP는 주식 줄이고, 대체자산 늘림

-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2021년 상반기에 주식비중을 33.2%에서 32.7%로 0.5% 줄이고, 3분기에도 32.9%에서 30.9%로 2.0%나 줄였음
- 같은 기간 대체자산은 27.8%에서 30.2%로 늘렸으며, 대체자산 중에서는 Private Equity 비중이 6.0%에서 7.6%로 크게 증가

3. CalPERS, Private Equity 비중 확대

-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공모주식(Public Equity)의 비중을 줄임
- CalPERS의 사모주식(Private Equity)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
- CalPERS는 실물자산의 대체투자의 새로운 세부투자 유형 신설. 신규 유형은 CalPERS Direct로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Tech에 투자하는 Innovation과 스타트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Innovation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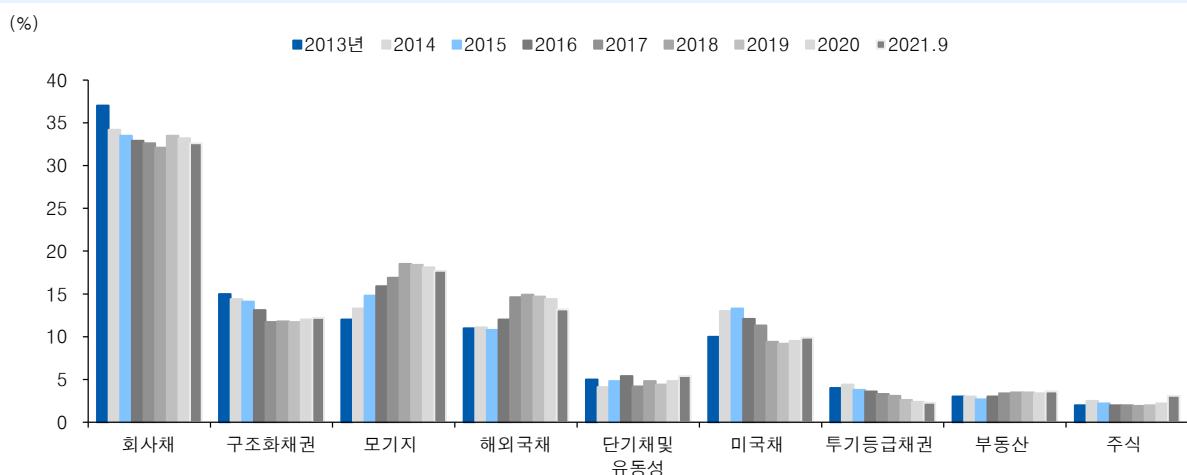
1. 미국 생명보험사 Metlife의 금리인상 대응법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이전 보고서(2021년 10월 15일)에서 다룬 것처럼 글로벌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장기 자산배분 국면에서도 정해진 주식비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2020년부터 주식비중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 MetLife의 일반계정은 생명보험사의 특성상,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2021년 Metlife는 해외국채와 회사채, 모기지의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과 주식, 미국채권을 확대하였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주식 비중 증가는 선진국 주식 시장의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투기등급채권은 2015년 이후 꾸준히 비중이 줄어들었다.

[차트1] Met Life의 자산 배분 변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네덜란드 ABP는 주식 줄이고, 대체자산 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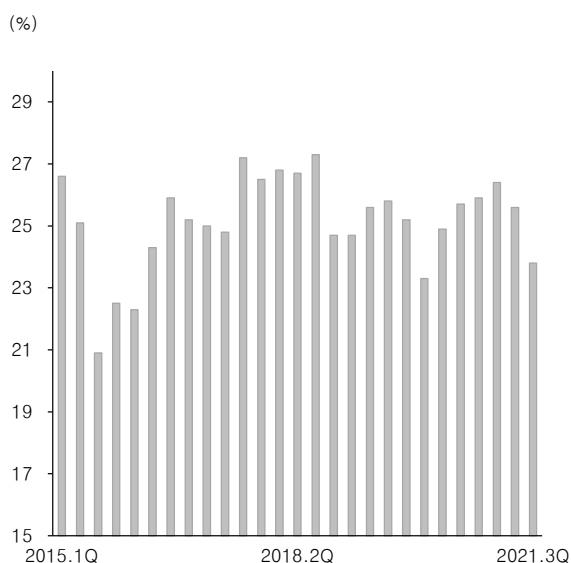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2021년 상반기에 주식비중을 33.2%에서 32.7%로 0.5% 줄였다. 3분기에도 주식비중은 32.9%에서 30.9%로 2.0%나 줄어들었다. 선진국 주식시장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 자산의 일부를 이익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주식자산은 25.9%에서 23.8%로, 신흥국주식자산은 7.3%에서 7.1%로 줄었다. 강세를 보였던 선진국 주식자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다.

2021년 1~3분기까지 채권자산은 38.1%에서 39.5%로 늘어났다. 채권자산 중에서는 신흥국채권 비중이 4.9%에서 5.8%로, 회사채 비중이 4.9%에서 5.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체자산은 27.8%에서 30.2%로 늘렸으며, 대체자산 중에서는 Private Equity 비중이 6.0%에서 7.6%로 크게 늘었다. Private Equity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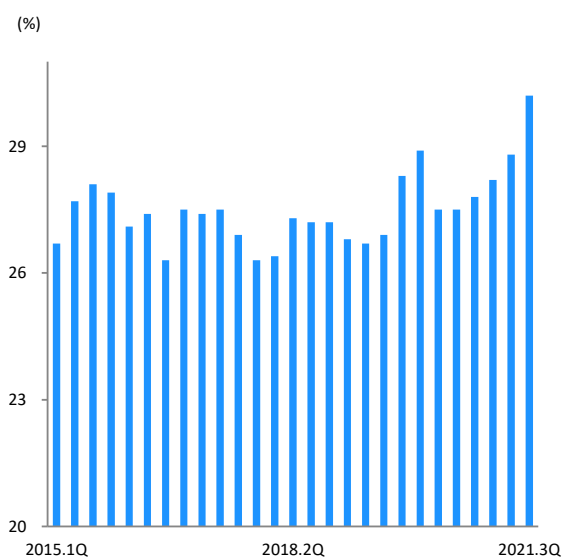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공모주식에서 추가수익을 얻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등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차트2] ABP의 선진국 주식 비중은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ABP의 대체자산 비중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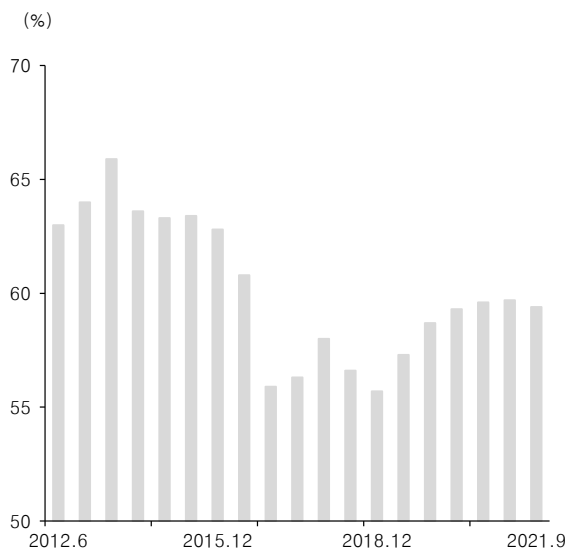
3. CalPERS, Private Equity 비중 확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공모주식(Public Equity)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Income자산(채권)비중은 2020년말 29.3%에서 2021년 9월말 29.6%로 소폭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실물자산의 비중은 10.0%에서 10.1%로 늘어났다.

기관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모주식(Private Equity)비중을 늘리는 추세이며, 이는 CalPERS도 마찬가지이다. CalPERS의 사모주식(Private Equity)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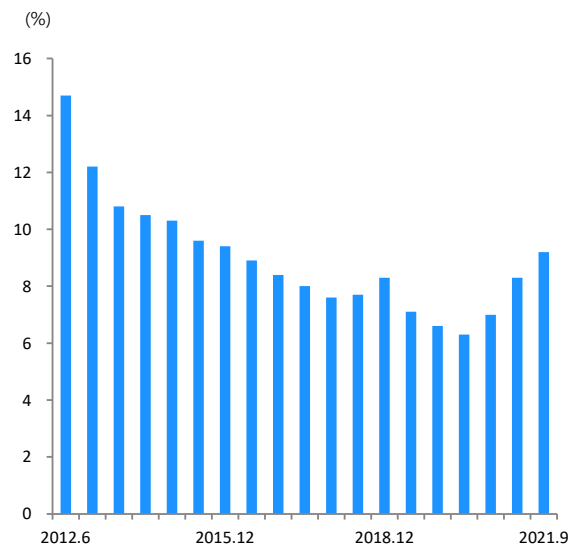
CalPERS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투자 규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장기투자, 초기 투자 등을 늘리기 위하여 대체투자의 새로운 세부투자 유형을 만들었다. 신규 유형은 CalPERS Direct로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Tech에 투자하는 Innovation과 스타트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Innovation으로 구성된다. 10~15년의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성과 현금 흐름·위탁운용사 관리 등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차트4] CalPERS의 Growth(Public Equity, Private Equity) 자산은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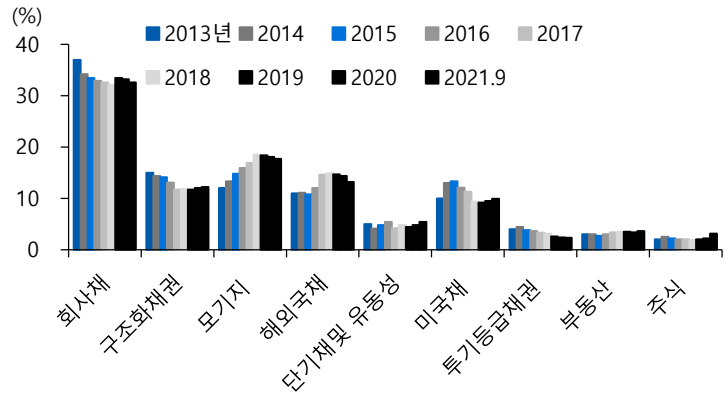
[차트5] CalPERS의 Growth 자산 중 Private Equity 비중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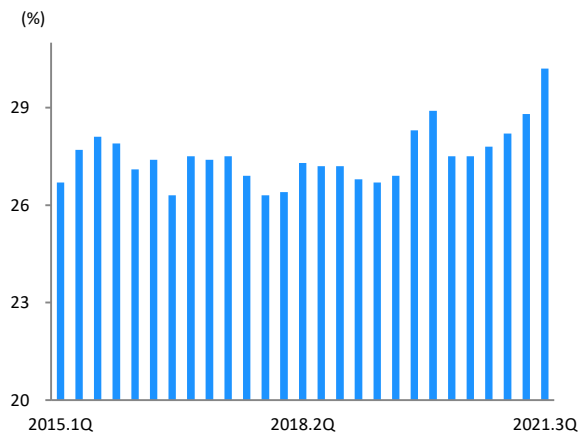
Key Chart

Met Life의 자산배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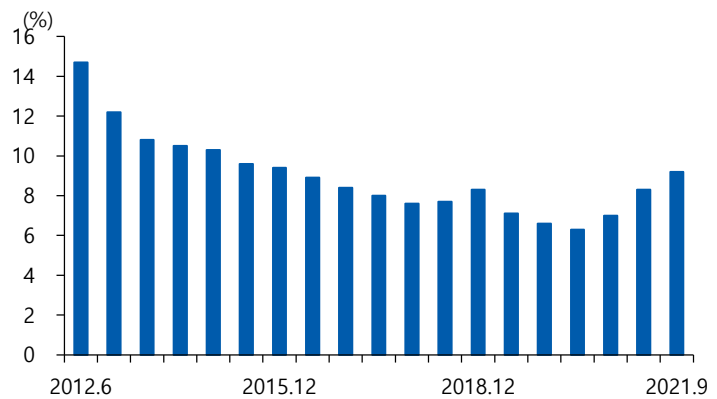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BP, 대체자산 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alPERS의 Private Equity 비중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